

유럽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단기 연수를 다녀와서



김 종 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kjchul@dongguk.edu

- 목 차 -

- I. 시작하며
- II. 연수의 목적
- III. 연수 일정
- IV. 방문 기관
 - 가. SACEM
 - 나. ADAMI
 - 다. CISAC
 - 라. WIPO
 - 마. SUISA
- V. 연수의 성과
- VI. 마치며

I. 시작하며

도서관 서비스에서 저작권을 인식하게 된지도 4년이 되었다. 대학도서관 단체는 2004년부터 학위논문의 원문 서비스에 대한 도서관보상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정책 당국과 저작권 관련 단체에 도서관도 하나의 이해 단체로 각인시킨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도서관 사서들이 저작권을 의식하고, 저작권 단체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 도서관계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초보 단계인 것만은 사실이다. 도서관 사서들은 저작권 보호보다는 저작권 공유 즉 자료의 이용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도 자료의 보존과 이용에 있기 때문에, 이는 도서관의 오랜 전통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사서로서 본인은 이러한 도서관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해 왔고, 현재도 이용자 우선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

작권 문제에 천착을 하고, 저작권 단체나 저작권 정책 당국자들을 자주 만나면서 이러한 나의 의식은 조그만 변화가 있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료 이용에 대한 권리가 있듯이, 저작권자에게도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가 존재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제에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단체와 그 단체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선진국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은 현재의 저작권 개념이 발생하고 정착한 본고장이며, 우리나라가 따라갈 모델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자나 저작권 단체 관계자를 만나면 선진국에서는 운운하며, 우리나라를 저작권 보호의 후진국으로 몰아, 저작권 공유를 주장하는 측을 무안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저작권이 보호되고,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에게 저작권단체를 방문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고, EU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선진국과의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막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인 저작권 분야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저작권 단체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한 이 사업은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 저작권 단체와 자국의 저작권 단체 8곳을 방문하여, 그 곳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차례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정리해 본다.

II. 연수의 목적

문화관광부는 2007년 5월 저작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저작권팀을 저작권정책팀과 저작권산업팀으로 분리하였다. 저작권정책팀은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조정 및 추진하고, 저작권산업팀은 저작권산업의 활성화 정책 수립과 저작권 집중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신설된 저작권산업팀은 팀장 이하 7명의 직원이 저작권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저작권집중관리 활성화 지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허가 및 지도 감독, 각종 보상금 관련 업무,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저작권등록 및 법정허락 제도 개선, 디지털저작권 유통 지원, 문화콘텐츠 유통활성화, 저작물 이용활성화 지원, 불법저작물 단속 및 권리구제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산업팀은 국내 신탁관리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 저작권제도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저작권 분야 종사자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 저작권관리기관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번 단기 연수를 계획하였다.

연수단은 저작권 관련 분야 현장 실무자 및 중간 관리자급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연수 전후 사전 교육 및 사후 결과 관리로 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고, 연수과제 해결을 위한 개인별 임무 부여 및 보고서에 임무 수행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참가대상은 국내 12개 신탁관리업체*의 종사자만이 아니라 사용자단체의 종사자도 포함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탁관리업체의 종사자의 업무 연수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사용자 단체의 이해의 폭을 넓혀 신탁관리업체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관 기관은 저작권단체연합회였으며, 참가자는 신탁관리업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고, 연수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였다.

III. 연수 일정

연수단은 미국(NY/LA, 워싱턴DC 등)과 유럽(스위스, 프랑스)의 두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본인은 유럽 연수팀으로 2007년 11월 13일에서 22일까지(8박9일) 프랑스와 스위스를 다녀왔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 자	지 역	일 정
11.13(화)	인천, 파리	인천공항 출발, 파리 드골 공항 도착
11.14(수)	파리	SACEM 방문
11.15(목)	파리	문화부, SESAM, ADAMI 방문
11.16(금)	파리	CISAC 방문
11.17(토)	파리, 인터라켄	스위스로 이동
11.18(일)	인터라켄	알프스 관광
11.19(월)	제네바	WIPO 방문
11.20(화)	쥐리히	SUISA, SWISSPERFORM 방문, 쥐리히 공항 출발
11.21(수)	인천	인천공항 도착

IV. 방문기관

일정표에 나온 바와 같이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제, 국내 단체를 합하여 8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개 단체를 방문한 결과를 간단히 기록한다.

가. SACEM(Socitides Auteurs, Compositeurs et Editeurs de Musique)

- 1) 방문일자, 시간 : 2007. 11. 14(수) 15:30 ~ 19:30(4시간)
- 2) 위치 : 프랑스 파리 근교(www.sacem.fr)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언론재단,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 3) 역할 : 프랑스의 저작권관리단체로 음악, 시, 기타 저작물의 보상금 및 사용료를 징수, 관리 함
- 4) 규모 : 1,460명의 임직원 근무, 사용자 60만 명에 연 6억 1천만 유로를 분배한다. 수입금 중 카페 등의 공연보상금 32%, TV등 방송 보상금 36.4%, 개인 사용료 24%, 외국에서의 입금이 1%정도임.



- 5) 한국과의 관계 : 1994년 KOMCA와 공연권에 대한 계약
- 6) 인상 : 처음 방문하는 기관이라 그런지 설레임 속에 프리젠테이션을 지켜보았다. 부회장인 Mr. Thierry Desurment는 약 1시간 반 정도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친절한 설명이 우리에게게는 장광설이 되었다. 음악 관련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단체가 가장 재정 상태가 좋다고 한다. 프랑스 전역을 아우르는 저작권 단체로서 기관의 위상이 느껴졌다.

나. ADAMI(Societe pour 'l'administration des droits des artistes et musiciens, interpretes)

- 1) 방문일자, 시간 : 2007. 11. 15(수) 15:20 ~ 17:30
- 2) 위치 : 프랑스 파리(www.adami.fr)
- 3) 역할 : 실연자 권리 집중관리 단체로, 배우, 가수, 지휘자, 댄서, 뮤지션 등의 저작권접권을 관리한다.
- 4) 규모 : 년 4,500만 유로 징수 분배
- 5) 한국과의 관계 : 없음



- 6) 인상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관계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질의하였다. 한국과 다른 법적 현실을 깨달았으며, 장차 한국의 단체가 이들 단체처럼 규모를 키우고 역할을 하게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를 것으로 보였다. 한 단체에서 자신과 연관된 단체라 하여 질문을 독점한다면 단체 연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CISAC(Con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Societes d'Auteurs et Compositeurs)

- 1) 방문일자, 시간 : 2007. 11. 16(금) 09:40 ~ 13:00
- 2) 위치 : 프랑스 파리(www.cisac.org)
- 3) 역할 : 국제저작권단체 연맹으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예술 레파토리인 음악, 드라마, 문학, 시청각저작물, 그래픽 및 시각 예술을 포괄하는 200만 이상의 창작자를 간접적으로 대표하는 비정부간 국제 연맹이다. CISAC의 업무

는 전 세계 저작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물론 그 권리의 집중관리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4) 규모 : 115개국의 219저작자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250만 이상의 저작자를 대표한다. 1926년에 설립되어 프랑스에 본부가 있으며,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남아프리카에 대륙별 지부가 있다.

5) 한국과의 관계 : 현재 KOMCA, KOSA, SACK 3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2004년 KOMCA는 제44차 CISA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6) 인상 : 국제단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관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건물의 한 층만을 쓰고 있을 정도로 단출하였다. 먼 곳까지 마중 나와 안내하는 친절함이 인상적이었다. 저작자 단체가 권리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작자는 저작권료를 최대한 받고, 사용자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지향한다고 한다.



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 방문일자, 시간 : 2007. 11. 19(월) 10:00 ~ 12:30

2) 위치 : 스위스 제네바(www.wipo.int)

3) 역할 : 1883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른협약, 1886 산업재산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협약이 있었는데, 이 두 조약을 관리하는 사무기구이다.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조약에 따라 이 기구를 설립하였다. 1974년 UN 전문기구가 되었다.



WIPO는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적 소유권과 문학·음악·사진 및 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 국제적 보호 촉진,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기술 등에 대하여 원조한다.

4) 규모 : 현재 184 개국 가입

5) 한국과의 관계 : 1973년에 옵서버로 참가하였다가 1979년에 정식 가입하였다.



6) 인상 : UN의 전문 기구답게 웅장한 건물에 출입자 통제도 엄격하였다. 홍보 담당자와 법률 담당자가 번갈아 나와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라 그런지 프랑스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개별 화면으로 보며 설명을 들었다. 이 기관은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 기관은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도 않고, 회원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 SUISA(de Suisse Auteurs : The Swiss Society for the Rights of Authors of Musical Works)

1) 방문일자, 시간 : 2007. 11. 20(화) 10:00 - 13:00

2) 위치 : 스위스 쥐리히(www.suisa.ch)

3) 역할 : 1923년에 비영리 기관으로 인가된 SUISA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권리소유자(작곡가, 작사가, 출판자)와 음악 사용자와의 사이의 신탁에이전트로서 활동한다. 즉 음악 창작가와 음악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저작권 중개 행정을 한다.



4) 규모 : 세계의 170만 명의 작곡가, 작사가, 출판자를 대표하여 9만이 넘는 사용자(콘서트 기획자, 레코드 회사, 미디어 등)에게 인증을 해 준다. 년 1억3,800만 스위스 프랑의 수입이 있다.



5) 한국과의 관계 : 한국의 KOMCA와 협약을 맺어 상호관리를 하고 있다.

6) 인상 : 건물과 내부 분위기가 아주 예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위가 있어,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정중하고 예의 발랐다. 다른 기관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식사 초대까지 해 줘서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SWISSPERFORM(스위스실연자단체)이 설명회에 함께 해주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고, 서로 연계한 설명을 해 주기도 하였다.

V. 연수의 성과

해외 연수는 많은 비용이 소용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유는 그 성과가 크기 때

문이다. 참가자들은 선진국의 발달된 시스템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연수의 성과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진국의 시스템 확인

우리나라의 저작권 단체는 대부분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나 스위스는 저작권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가 나누어져 있으나 프랑스는 SACEM, 스위스는 SUISA로 모든 저작자들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마 오래전 저작권이 현재와 같이 자세하게 분화된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권리자 단체가 만들어져 현재와 같이 된 것 같다. 이는 권리자 단체의 규모를 키우고 힘을 발휘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형태인 것 같다. 그래서 1996년에 멀티미디어에서 생기는 새로운 저작권 형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SESAM도 모든 레파토리를 망라한 단체로 만들어진 것 같다.

2. 인터넷 환경에의 대처

프랑스나 스위스의 인터넷 환경은 우리나라에 3~4년 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참가자들이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질문을 하였는데, 돌아온 공통적인 답변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WIPO에서의 답변은 참가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범세계적인 어떤 대책을 기대했었는데 WIPO의 답변은 문제를 제기해봐라 그 해결책을 범세계적으로 모색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아마 4~5년이 걸려야 나올 것 같았다.

3. 국민의식

SUISA를 방문하였을 때 한 참가자가 질문을 하였다. 이용자들이 법을 잘 지키느냐고. 답변은 물론 잘 지킨다는 것이었다. 집단적인 저항은 없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 답변은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듯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역사와 국민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SUISA만하더라도 1923년에 결성되어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고 생활화하고도 남았을 오랜 시간이다. 30~40년도 안 되는 일천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현실을 비관만 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기 바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사후에 그러한 노력도 충실히 하지 않았다.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법은 이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는데, 국민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니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4. 사회적인 합의

지금 저작권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저작물 사용자의 준법 의식과 인터넷 등에서의 디지털 복제에 대한 것일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는 최저의 비용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자는 최대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CISAC에서는 이를 여러 번 강조하였다. CISAC은 자기 단체를 저작자들만을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단체들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주장만을 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저작물 유통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익 활동을 강화하고, 저작권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I. 마치며

이번 연수단은 7일에 걸쳐 2개국 3개 도시의 8개 기관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약속된 방문 시간을 넘겨가며 질의응답을 하는 등 열의가 대단하였다. 여러 기관을 둘러보면서 아직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후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저작권 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과 논리 전개에만 몰두하고 있어 이해의 간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저작권 보호를 내세워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저작권 보호는 단지 저작권자들의 권익 옹호만이 아니라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자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정책 입안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고, 이를 한국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통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저작권 보호는 당연한 것이며, 이용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저작물의 정상적인 유통을 통한 문화의 창달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도서관 보상금도 제도만 도입해 놓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 단체,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의 합의를 통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서관은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고, 남녀노소 전 국민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도서관 사서, 이용자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도서관 사서의 입장에서 연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이 연수를 저작권 단체는 단체대로, 사용자 단체는 단체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